

영암 F1 D-3

F1 드라이버들에게 새로운 코스는 가슴 벅찬 도전 대상이다. 오는 24일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치러질 영암서킷도 예외일 수 없다. F1 홈페이지는 18일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영암 서킷에 대한 예상 평을 들어봤다. 선수들은 지난주 일본 스즈카 대회 직후 경주로 구성도를 입수하거나, 시뮬레이팅 게임을 통해 영암 서킷을 연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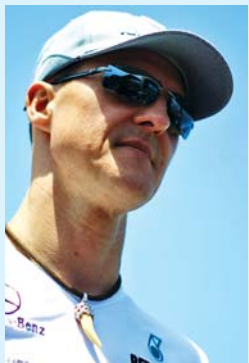
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이다. 새로운 코스는 참가 선수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은밀한 속살을 동시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, 도전하는 재미를 더할 것이라는 코멘트들이 많았다.

섹터 1의 직선주와 마지막에 나오는 곡선주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다는 선수들이 많았다. 이제 막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다는 지적과 벽이 너무 가까워 부담스럽다는 평도 있었다. 서울에서 멀다는 것도 단점으로 떠올랐다. 극복해야 할 과제다.



“영암 트랙은 환상의 스피드 코스”

Driver's Preview



〈미하엘 슈마허〉



〈루이스 해밀턴〉



〈켄슨버튼〉



〈닉 하이트 펠트〉

“맥라렌의 F1 머신과 맞춤형 코스”

◇루이스 해밀턴(25·영국·맥라렌)=시뮬레이터로 영암 서킷을 달려봤다. 첫 인상이 매우 긍정적이다. 우리 팀 맥라렌의 F1머신에 꼭 맞는 경주로인 것 같다. 특히 섹터 1은 최고의 스피드와 완벽한 제동이라는 우리 머신의 두 가지 특성에 딱 어울린다. 중간 섹터에서는 밸런스 유지와 적절한 속도조절, 마지막 구간에서는 리듬을 타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. 트랙 표면에 문제가 없고 잘 컨트롤 된다면 한국에서의 첫 번째 레이스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.

“즐길 준비 끝났다...뭔가 보여 주마”

◇미하엘 슈마허(41·독일·메르세데스)=영암서킷이 최근에 완공됐다고는 하지만,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것 같다. 레이서들은 새로운 경주로에 잘 적응해왔다. 나도 새로운 경주에서의 레이스를 매우 즐기는 편이다.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

“미끄러운 경주로 위험할 수 있다”

◇닉 하이트 펠트(33·독일·BMW)=새로운 트랙과

시설이 어떨지 매우 궁금하다.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경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됐느냐가 중요하다. 만약 마지막 도로 층을 최근에야 포장했다면, 미끄러울 수 있다. 이는 매우 큰 문제다. 그렇지만, 새로운 경주장은 언제나 환영이다. 특별한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되도록 많은 나라에서 F1그랑프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.

“흥미진진한 도전... 초반 스피드 승부”

◇니코 로즈버그(25·독일·메르세데스)=흥미진진한 도전이 될 것이다. 최근에 사진을 통해 한 번 봤는데, 아스팔트를 이제 막 깔아놓은 것 같았다. 나는 초반에 스피드를 내는 것을 즐긴다. 코리아 그랑프리 기대된다.

“3개 직선 주로는 훌륭한 추월 코스”

◇켄슨버튼(30·영국·맥라렌)=매우 재미있는 트랙이다. 3개의 직선주로는 몇 차례의 추월 기회가 있을 것 같다. 구불구불한 마지막 구간에서는 주로 이탈 위험성도 내재돼 있다. 전반적으로 고속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, 벽이 너무 가까운 것이 부담이다. 참가 선수들과 대회 주최 측이 잘 협력한다면, 코리아 그랑프리는 꼭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.

“현대적인 서킷... 최고의 경주 될 것”

◇헤이키 코발라이넨(29·핀란드·로터스)=전적으로 현대적인 서킷이다. 끝 부분에서 급제동을 해야 하는 기다란 직선주로는 인상적이다. 몇몇 가파른 코너들도 존재해 있다. 서킷 구성도를 한번 봤는데, 제1섹터에서 올바른 코스만 찾는다면 최고의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. 아무래도 새로운 타이어가 필요할 것 같다.

“사전 연습서 공략지점 찾아낼 것”

◇야노 트롤리(36·이탈리아·로터스)=상당히 훌륭한 코스인 것 같다. 몇몇 드라이버들은 시뮬레이팅 게임을 통해 라인을 한번쯤 돌려 본 것으로 알고 있다. 하지만, 나는 연습경기에서 몇 바퀴 돌아봐야 공략지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.

“가까운 한국대회 도전 할 만한 가치”

◇카무이 고바야시(24·일본·BMW)=우선 한국의 따뜻한 날씨가 맘에 든다.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. 그러나 레이스를 위해 유럽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가까운 한국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맘에 든다. 아시아 레이스를 좀 더 많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.



〈니코 로즈버그〉



〈야노 트롤리〉



〈카무이 고바야시〉



〈헤이키 코발라이넨〉

♥신축건물에
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!
♥각종 이벤트 행사
장소로도 적합!

1객실 1주차
도심속 정통무인텔!

무인텔
필

테마룸 →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

NAVER 검색창에 **무인텔 필** 을 쳐보세요!

☎ 062) 523-7789
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-1번지
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
인터넷주소 : www.feelmotel.kr